

## 조선후기 궁중의례에 사용된 보계(補階)의 유형과 세부 구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ypes and Detail Structures of the Stylobate(補階) used in Royal Court Ceremoni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석진영\*

Seok, Jin-Young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한동수

Han, Dong-Soo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Abstract

The stylobate for expanding the external stage area was the most frequently installed installment out of the installments installed for royal court ceremonies. The stylobate was installed for various ceremonies such as funeral rites, ancestral rites, customary formalities, state examination, feasts for celebrating a honored guest of the court, queen's silkworm cultivating ceremony, heir appointment, the presentation of honorary titles for the king or queen in honor of their merits, and entertainment of foreign dignitaries. The exact period stylobates came to be used for the play stage. The stylobate consists of the 紅座板, 屯太木, 竹欄間, 足木, and the 層橋. Depending on the 足木, the substructure of the stylobate, the stylobate could be divided into the 長足木, 中足木, 短足木, 平足木 type. The detail structure of the stylobate changed in form from the jokmok and duntaemok that appeared until the time of King Seonjo, into the 長屯太木, 短屯太木, and the 短短屯太木 during the time of King Heonj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中足木, materials began to become more segmented and the structure stronger. According to existing records, while the height of the stylobate was not significantly high prior to King Seonjo's reign, the 十四層雲橋 and the 十三層層橋 introduced during the time of Emperor Gojong was designed to reflect his rank in external ceremonies while the eight story step bridge was exhibited in internal ceremonies to reflect the rank of Queen Mother Sinjeong. From here, we can deduce that the fourteen and thirteen story cloud bridges representing the king was of a higher grade than the eight story step bridge which represented the queen mother. Finishing by adding boards to the lower part of the stylobates began to appear in the time of King Seonjo. During King Heonjong's reign, the lower finish became gentrified with a thin board called 修粧板, and yeomupan 廉隅板 for decorating the edges of the stylobates were installed. Such style of finishing the lower part of the stylobate with boards mostly appeared in elaborate feasts 進饌 and celebrations 進宴 within the royal court 內宴. The stylobates appeared to have served not only practical purposes such as expanding the stage area, but also as installments which realize the authority and prestige of the royal crown. They were install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ceremony and the rank of the participant. In short, stylobates became established during King Seonjo's reign, became segmented and gentrified during King Heonjong's reign, and began to take height variations during Emperor Gojong's reign to reflect the rank and authority of the king and queen mother. As such, it can be considered another characteristic of Joseon Dynasty architecture.

주제어 : 궁중의례, 연희 무대, 보계, 유형, 세부 구조

Keywords : Royal court ceremonies, Playacting Stage, Stylobate, Type, Detail Structure

#### 1. 서론

왕실은 유교의 예제에 입각하여 공간의 위차에도 신  
분과 목적에 따라 구분하였다. 왕실의 행사가 거행되  
는 장소의 바닥에는 주로 자리를 깔았다. 하지만, 예제

\* Corresponding Author : seokjump@hanmail.net

상의 주요공간에는 높낮이의 차이를 두어 위계를 형성하는 마루무대를 설치하였다. 즉, 왕실 행사에서 높낮이가 있는 단을 구획하고 위계를 나타내는 시설을 補階<sup>1)</sup>이라고 하는데 전각 앞의 월대나 殿庭에 임시로 설치되는 일종의 마루판 구조물이다. 보계가 처음 사용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보계는 왕가의 위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에는 다양하게 배설되어 행사를 진행했으며, 주로 왕실에서 거행한 연회인 외연과 내연에 배설되었다. 궁중 연향의 공간 연구<sup>2)</sup>는 최근 활발하다. 보계는 부분적으로 차일<sup>3)</sup>, 연회무대<sup>4)</sup>, 미술사와 공연 분야에서 선행연구가 있다. 하지만, 보계의 체계적인 건축연구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례의 수리와 배설에 관한 조선후기 사료를 근거로 왕실의례에 다양하게 사용된 보계의 유형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보계의 연구는 궁중 의례에 사용되었던 다른 가변 시설인 차일, 장막 등의 관련 시설 연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계를 그동안 궁중 연회무대에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단순한 가설시설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그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보계의 최초 배설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또한, 보계에 관한 사료 가운데 조선 초중기의 사료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선 초중기의 경우는 조선왕조실록과 궁중 기록화를 참고하고 문헌사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진작의례, 진찬의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내연의 보계가 변화되는 양상을 보계의 유형과 세부구조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다루었으며 각 단계에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 2. 조선후기 궁중에서 사용된 補階의 유형

### 2-1. 궁중 의례에 사용된 보계

1) 補階는 잔치나 큰 행사가 있을 때에 전각에 이어 덧대어 외부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마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례의 용어인 補階로 연구하고자 한다.

2) 경세진, 조재모, 「조선후기 궁중연향의 실행과 공간운동에 관한 연구 -순조 궁중연향의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8권, 1호, 2012

3) 최지영, 「조선시대 궁중의례에서 사용된 차일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세기 이후 궁중연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 정현정, 「조선시대의 상층향유 연회무대와 현대화 방안」,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왕실은 국가의 안위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행사를 거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의례의 목적에 상응하는 가설시설들이 필요하였다.

왕실의 행사가 거행되는 장소에는 주로 돛자리를 깔았다. 이와 더불어 왕실의 의례상 중요한 행사의 바닥에 補階를 배설하였다. 보계가 처음으로 사용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이른 시기부터 왕실 행사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위계를 나타내는 위하여 다양하게 배설되어 행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궁중 행사의 가설시설 가운데 하나인 보계는 판자를 배열하여 넓게 수평면을 만드는 일종의 가설바닥구조이다. 왕실 의례행사에 사용된 보계는 <표 1>과 같이 상례, 제례, 대례, 가례, 관례, 책례, 작헌례, 연회, 존호, 사신, 분축연, 양로연 등의 행사에 배설되었다.

보계가 배설된 왕실 의례 가운데 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설치된 보계는 대차, 소차에 배설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난리를 겪은 이후 판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草蓆을 깔아 제배를 올리기도 했다.<sup>5)</sup>

표 1. 보계가 배설된 왕실 의례(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를 참조하여 작성함)

시기	궁중 의례에 사용된 補階											
	상례	제례	대례	가례	관례	책례	작헌례	연회	존호	사신	분축연	양로연
연산군	-	-	-	-	-	-	-	●	-	-	-	-
중종	-	-	-	-	-	-	-	●	-	-	-	-
명종	-	-	-	-	-	-	-	-	-	-	-	-
선조	-	-	-	-	-	-	-	-	-	●	-	-
광해군	-	-	●	●	●	-	-	●	-	●	-	-
인조	●	●	-	-	-	-	-	●	-	●	●	-
숙종	●	●	-	-	-	-	-	●	-	●	-	-
현종	-	-	-	●	-	-	-	●	-	-	-	-
경종	-	-	-	-	-	-	-	-	-	-	-	-
영조	●	-	-	●	-	-	●	-	-	●	-	-
정조	-	●	●	-	-	●	-	●	●	●	●	-
순조	-	-	-	-	●	●	-	●	●	-	-	-
헌종	-	-	-	-	-	-	-	●	-	-	-	-
철종	-	-	-	-	-	-	-	-	-	-	-	-
고종	-	-	-	-	-	-	-	●	-	-	-	●

또한, 정조와 순조시기에 사용된 보계를 『만기요람』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과거시험에 사용되는 보계의 규모가 가장 크고

5) ○ 朴明博以戶曹言啓曰, 卽接繕工監官員牒呈, 來二十五日社稷親祭時, 因政院分付, 殿坐廳當爲補階, 而容入板子磨鍊, 則長廣卽十六間, 所鋪多至三百餘葉矣。自前親祭時, 例以三江私儲取用, 用後還給。而經亂之後, 三江人家, 無一板子。百爾思之, 萬無覓得之路, 自本曹急速備給云。此時板子覓得之難, 果如所報內辭緣, 臣等反復思惟, 罔知攸處。設令某條, 多般覓得, 其數必不能盡鋪。至於小次內排設板子缺外大次則厚鋪空席[石]草蓆, 似或便當。敢稟。傳曰, 依啓。(『승정원일기』 65책 (탈초본 4책) 인조 16년 5월 20일 임오)

알성시, 존호를 올릴 때, 환갑, 혼례, 책례, 친잠 등의 순서로 규모가 줄어들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慶禮時 補階 (萬機要覽』을 중심으로 작성함)

전각	시기	의례	규모
暎花堂	1778년	觀武才	78間
		慶科	82間
	1785년	謁聖	82間
	1803년	謁聖	82間
	1804년	慶科 庭試	82間
景福殿	1807년	慶科 庭試	82間
	1783년	尊號 올릴 시	-
	1784년	尊號 올릴 시	-
慈慶殿	1804년	尊號 올릴 시	30間
重熙堂	1742년	冊寶 시	15間
壽靜殿	1784년	世子冊禮 시	-
延禧堂	1785년	尊號 올릴 시	65間
大造殿	1785년	惠慶宮 환갑 進饌 시	52間
熙政堂	1742년	正祖 혼례 시	45間
涵仁亭	1804년	駙馬揀擇 시	16間
	1828년	到記儒生 試取에 親臨 시	12間

2-2. 궁중 연희에 사용된 보계

조선 왕실은 한해의 왕실의 의례행사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외에도 궁중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연희를 설행했다. 이러한 의례행사는 주로 왕이 주도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를 크게 外宴과 內宴으로 구분한다.

외연 연희무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補階였다. 보계는 연희무대의 공간을 구획하는 넓은 공간으로 왕실의 외연, 내연에서 모두 중요하게 배설되었다. 이는 돛자리와는 달리 격조가 높은 형식으로 외연 공간구성을 주도하고 단 차이를 두어 위계도 구분하는 요소였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궁중에서 연희를 베풀 때 보계를 배설하였지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자료로 보면 궁중 연희 시 설치하는 보계는 연산군 시기에 처음 확인된다. 이어 정조시기와 순조 시기의 보계 설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어소에서 주악할 재주 있는 운평을 뽑고, 강녕전 보계를 넓히게 하다. 전교하기를, "오는 7일 移御所에서 奏樂할 운평은 음률도 잘 알고 노래도 잘 부르는 자로 8백 명만 뽑아 逆祥服을 갖춰 입고 들어오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康寧殿 補階를 다시 더 넓게 시설하여 1천여 인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라." 하였다.<sup>6)</sup>

-무자년(1828, 순조28) 01월15일 : 영하기를, "補階 할

곳을 살펴보았는가?" 하니, 호조판서 박종훈이 아뢰기를, "그저께 해가 저물어 살펴보았는데, 뜰 안에는 고르게 보설하여 높고 낮음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쪽, 남쪽, 서쪽은 모두 행각의 창 벽에 연결시키면 작년에 비해 조금 넓을 듯합니다. 행각은 바깥쪽으로부터 길을 통하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sup>7)</sup>

-무자년(1828, 순조28) 11월 25일 : 김로가 말하기를, "명정전 補階는 臣의 曹에서 거행하는데, 월대에 平補階를 설치하면 容接 할 수 있습니다."고 하니, 하령하기를, "평보계로 하라. 백관은 월대 아래서 宣醞하는 것이 可하다."라고 하였다.<sup>8)</sup>

연산군(1505)의 강녕전 보계와 순조시기의 명정전 보계는 정전에서 설행된 외연에 설치하는 보계이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 시기 강녕전에 배설된 보계는 많은 인원을 앉히기 위해 무리하게 확장시켜 보계를 배설하였으며, 순조 명정전 외연의 보계는 월대의 공간을 활용하여 보계의 단 차이를 두지 않는 평보계를 설치하고 관리들은 월대 아래에 자리하였다.

정조의 수정당 보계와 순조의 자경전 보계는 대비들의 전각에서 설행된 內宴에 설치하는 보계이다. 내연의 보계는 전각의 殿庭공간을 활용하여 참여 인원과 주변 행각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배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연희에서의 보계는 왕실의 주변을 위해 배례를 올리는 역할과 함께 여령의 무용인 정재가 설행되는 무대의 기능을 한다.

조선시대 왕실 행사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신접대였다. 특히, 사신을 접대하는 일은 나라의 존립에 영향을 끼치는 행사로 도감을 설치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선조시기의 기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광성이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天使가 轎子를 나란히 하여 가면 겨우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혹자는 隆政殿이 매우 좁아서 기둥 밖의 果床, 閣門 밖의 補階가 모두 매우 구차하고 앞길이 또 이와 같으니 仁政殿 東廊을 함께 일하여 짓는다면 그 역사가 큰 규모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sup>9)</sup>

-영접 도감이 아뢰기를, "평소에 天使에게 연향을 베풀던 처소는 勤政殿 및 太平館의 남쪽 대정이었는데, 집들이 크고 공간이 널찍하여 비록 饌卓과 대소의 饌床을 차리더라도 넓은 여지가 있었으므로 상께서 천사와 예를 행하실 때에 진퇴 주선하는 데에 있어 좌우 모두가 적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일 상을 올리거나 각 差備進止官과 御前通事·舞童 등이 드나드는 데에 있어서도 구

6) 傳曰: "來初七日移御所奏樂運平, 擇解音律能唱者八百名, 具逆祥服以入." 又傳曰: "康寧殿補階, 更加廣設, 令可坐千餘人." (『연산군일기』 60권, 연산 11년 11월 5일 병술)

7) 이의강, 『국역순조무자전작의궤』, 보고사, 2006, 53쪽  
8) 송방송·김중수, 『國譯純祖己丑進饌儀軌, 卷一』, 민속원, 2007, 47쪽  
9) 『승정원일기』 5책 (탈초본 1책) 인조 3년 3월 28일 병자

매되는 바가 없었으므로 寶筵의 예모가 불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평관의 御室 및 南別宮의 西廳을 연향을 베푸는 곳으로 삼으려고 하니 근정전 근처에 비하면 공간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신들이 상용하는 床卓의 넓이를 가지고 宴廳의 지형을 자로 재어보았더니, 꼭 차게 되어 공간이 너무 적어서 비록 補階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심히 군색하여 모양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sup>10)</sup>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勤政殿 및 太平館에서 설행했을 때의 상황과 南別宮에서 보계를 규모에 맞게 설치하면서 연회에 필요한 탁자의 규모도 宴廳의 지형과 규모에 맞게 배설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사신의 접대에서 살펴보면 1730년 일본 사신이 숙박소 문 앞에 도착하고 왜는 가마에서 내려 서쪽 문으로 들어가 관자가 깔려 있는 서쪽 뜰에 선다.

부산진에 있는 객사에서 肅拜禮<sup>11)</sup>를 행했을 때에는 왜사가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 뜰에서 숙배를 하었는데 여러 차례 堂上에서 숙배할 것을 청하였다. 하지만 조선 측에서는 끝내 이를 거부하였고 대신 뜰에 흙을 돌우고 판재를 깔아 그 위에서 행례하게 해 주었다<sup>12)</sup> 이것이 선례가 되어 초량외관에서 왜사 숙배례 역시 판재 위에서 행해졌다.<sup>13)</sup> 하지만 현존하는 회화 자료에서는 배례 시 돛자리를 배설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2-3. 기타 보계

보계는 조선시대 왕실의 행사에서만 배설하는 가설 시설이다. 하지만, 왕실에서는 사대부의 행사에 보계를 배설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명종(1556) 시기에 관료의 집에 혼인을 위해 보계를 배설할 수 있도록 지시한 내용이 있다.<sup>14)</sup> 이는 왕실에서만 허용되는 보계가 특별한 경우 관료와 사대부 가에도 허용되었음을 알려준다.

명종시기에는 사대부가의 혼례에 補階, 圍帳, 草茷, 空石을 운허하였으며, 공신을 위한 分軸宴에서도 설행 전각의 공간이 협소할 경우 보계를 설치하여 공간을 확장하였으며 보계에 소용되는 관자는 該司, 紫門監에서 보관하였다.

3. 궁중 연희무대 補階의 세부구조

3-1. 보계의 배치와 구성

보계의 배치는 사료와 기록화로 추정, 복원할 수 있다. 정조시기 봉수당 진찬 등에서 보계의 배설이 의궤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보계의 구체적 배치는 형식은 알 수 없다. 이후 순조시기 『자경전진작정례의궤』에서 자경전 전각과 함께 殿庭에 구획된 보계의 배치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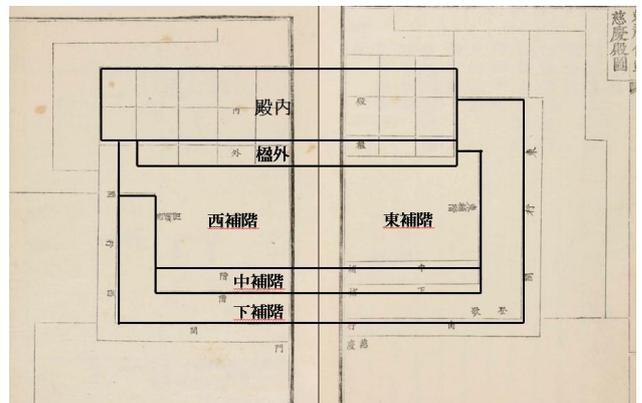


그림 1. 慈慶殿圖의 補階.(출처: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

자경전을 전내와 기둥 외로 구분하였고, 전정의 內補階를 東補階, 西補階로 구분하였다. 또한, 보계의 단차이를 두어 中補階, 下補階로 보계를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자경전 진작 이후 무자진작에서는 王世子翌日會酌으로 연희가 설행 된다. 익일회작의 연희는 보계의 기틀이 갖춰지게 되면서 보계의 배치도 연희의 상황에 맞게 배설되었다. 왕실에서 설행되는 연희의 주요무대인 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를 의궤의 기록으로 추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계는 間을 기준으로 규모를 정한다. 보계의 상부는 마루인 紅座板과 마루모서리를 장식하는 廉隅板, 중죽을 이용하여 세우는 竹欄間으로 구성된다.

보계 하부의 구조는 지지목인 족목과 높이에 따른 層橋로 구성된다. 계단인 층교는 散補板을 대어 제작되었다. 층교는 무신진찬 이후 다양한 층교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10)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영접 도감이 연향의 상황 등을 아뢰다. (『선조실록』 145권, 선조 35년 1월 21일 갑인)

11) 일본의 사신이 지참하고 온 외교 문서를 조선의 국왕에 바치는 의례이다.

12) 『변례집요』 권7 「연례」 1636년 병자 3월; 1637년 정축 12월; 1638년 무인 3월; 1640년 경진 5월.

13) 심민정, 「조선 후기 일본사신 왕래와 접대양상」,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39쪽

14) 辛未/傳于政院曰: “清原府院君【韓景祿。】家成婚處,補階、圍帳、草茷、空石,聽司鑰之言,排設可也。”○李植,以錄勳都監言啓曰,兩功臣分軸宴時,應參之員甚多,有廣闊廳事則可以設行,而城中無廣闊公廳,故古兵曹當爲設行,而古兵曹亦不敵豁,不得已補階然後又可成禮,該司板子無所儲云。紫門所儲板子,暫時出用後還入之意,惶恐啓。傳曰,依啓。(『승정원일기』 5책 (탈초본 1책) 인조 3년 4월 19일 병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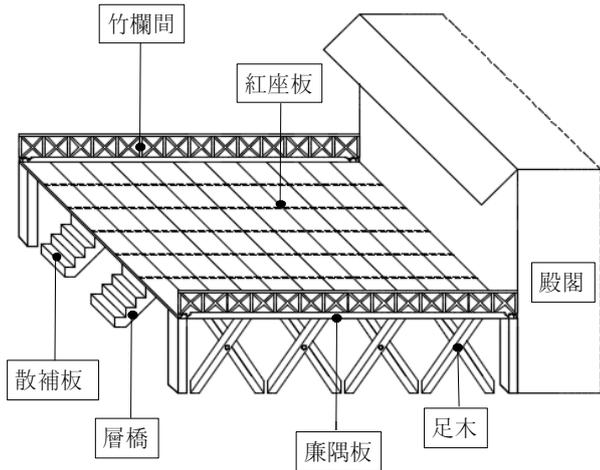


그림 2. 補階마루 구성요소의 추정 복원도

1848년 설행된 헌종무신진찬의 보계는 一百間半과 紅座板 二百二十浮 규모이다. 홍좌판이 보계의 2배가량 소용된 것으로 보아 홍좌판 2개로 보계 한 간을 구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보계와 홍좌판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현재 통명전 수리보고서에 평면도의 장축이 21,493cm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계와 홍좌판을 정방형으로 가정하고 규모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우선 의례의 기록에는 통명전의 상층보계 49간반이 동서 9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서 9간을 통명전의 장축인 21,493cm로 나누면 보계 한 간은 2.39m이며, 홍좌판의 규모는 보계의 2배가 소용되었으므로 2.39m의 2배인 4.78m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즉, 보계의 마루는 우물마루 형식이 아닌 널마루 형식으로 배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3-2. 보계의 하부 구조에 따른 유형

보계를 구성하는 구조는 크게 마루판과 마루판을 지지하기 위해 足木을 세우는 구조를 갖는다. 조선시대 왕실의 연회에 사용된 보계는 마루의 변화보다 마루판을 지지하는 지지목의 형태와 수량의 변화가 크다.

보계의 지지목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보강되어지면서 발전을 하게 된다.

보계의 유형을 의례에 기록된 족목의 용어를 기준으로 우선 기록화로 분류해보면 <표 3>과 같고, 유형이 시기와 연회의 상황에 맞게 변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補階마루 하부 구조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은 보계마루 하부에 설치된 足木의 모양으로 구조형식을 분류하였다.)

구조 형식	의례 보계	보계의 세부 유형
短 足木形	수연 보계	 선조 1605, 선묘조제경수연도
	알성시 보계	 선조 1580, 알성시은영연도
中 足木形	외연 보계	 영조 1744, 기사경회첩, 본사연도
	외연 보계	 영조 1763, 기영각시첩
長 足木形	외연 보계	 정조 1706, 낙성연도
	수책의 보계	 고종 1879, 왕세자수책의
平 足木形	외연 보계	 정조 1785, 을사친정계병

短足木형은 선조시기에 주로 나타난다. 이는 선조시기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보계를 지지하는 목재의 길이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계 위에 자리하는 이의 수가 많지 않은 연희로 생각된다.

中足木형은 영조 시기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영조시기는 선조시기의 외연보계보다 족목의 개수가 증가되어 좀 더 내구적인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보계위에 자리하는 참석자의 수가 증가된 것과 상관성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진찬 의례에 기록된 중족목은 현종시기에 나타나며, 순조시기까지는 족목으로 기록되어 있어 기록화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장족목형은 정조시기에 나타나는 유형으로 생각되며, 이전 시기의 지지목에 비해 족목의 거리도 긴밀하게 이어져 교차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장족목을 이용한 견고한 족목의 구조는 보계의 높이를 이전 시기보다 더욱 높게 배설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조시기의 보계는 이전 시기에 비해 보계의 지지목의 형태가 더욱 견고한 구조로 발전되어 나타난다.

장족목이 진찬의례에 등장하는 시기는 현종의 무신진찬부터이다. 이전 순조시기까지의 기록에는 족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전시기부터 연희에 사용되었던 부재들이 순조시기부터 진작과 진찬의례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성이 높다.

평족목형은 보계의 높이가 높지 않은 보계의 구조로 참석자가 많지 않은 외연의 형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내보계가 아닌 외보계의 형식으로 배설된다.

평족목형은 악공의 보계나 낭청 등이 자리하는 외보계의 구조로 보계의 높이가 높지 않으며, 보계 위에 자리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형식에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보계는 평보계 형식으로 배설되어 연희무대가 외부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즉, 보계는 선조시기부터 고종시기까지 보계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구조가 변화되며, 발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3-3. 보계 세부 자재의 시기별 변화

외연의 보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 부재는 足木으로 이것은 短足木形, 中足木形, 長足木形, 平足木形으로 구분할 수 있다.

短足木形의 보계의 구조는 짧은 족목으로 높이에 따라 족목의 길이와 개수를 증가 시키는 형식으로 발전한다. 또한, 결속을 견고하게 하여 보계의 높이를 올

리는 형식으로 발전되어 연희무대를 조성한다. 보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족목형의 보계 구조는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된 형식으로 선조 시기부터 고종시기까지 왕실 의례인 연희의 주요 구조로 자리하게 된다.

보계에 사용되는 목재의 자재 등을 진찬의례에서는 修理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다. 의례에는 보계의 구조부분을 제작하기 위한 목재의 수량과 비용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빌려 쓰거나 새로 준비하는 등의 관리기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보계의 자재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자경전진작정례의례』에서 보계의 間數를 알 수 있다. 이후 보계의 제작에 소용되는 자재를 정리한 <표 4>를 살펴보면, 무자진작의 보계는 홍좌판, 둔테목, 족목, 운교, 답장, 말목, 지탱목 등으로 자경전 앞의 보계는 홍좌판을 깔아 지지목으로 지지하는 형식이며, 죽난간을 보계 마루위에 설치한 구조형식이다.

왕세자의 연희 준비 공간이었던 環翠亭에도 보계를 배설하였는데 자경전의 보계보다 들어가는 자재가 간소하다. 수리로 구조를 만든 보계는 배설로 마감하여 장식하였는데 주로 이어붙인 문양이 있는 돛자리를 깔았다. 돛자리의 縑는 靑色으로 이는 왕실 내연의 중요한 공간에는 보계를 배설하여 위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기축진찬(1829)은 외연과 내연이 같이 설행되어 명정전에서 열린 외연과 자경전에서 열린 내연의 보계 자재를 살펴볼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둔테목이 장둔테목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즉, 기축진찬부터 장둔테목이 나타나고, 보계의 높이도 높아지면서 보계 하단 부분 마감을 판재로 덧대어 배설한 구조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록이다.

현종 시기에 설행된 무신진찬의 보계 자재는 더욱 다양하게 분류된다. 둔테목은 長屯太木, 短屯太木, 短短屯太木으로 세분화되고, 족목은 長足木, 中足木, 短足木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층교의 자재인 散補板은 <표 5>로 살펴보면 정축진찬부터 수량이 급격히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현종 시기의 특징은 의례에 中足木이 등장하는 것이다. 중족목은 이후 무신진찬, 무진진찬의 외연과 정축진찬, 정해진찬, 임진진찬의 외연, 임인진연의 외연에서 등장한다.

중족목이 사용된 정확한 근거는 알 수 없으나, 참여자의 인원이 많은 성대한 연희일 경우에 보계의 단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자재로 추측된다.

표 4. 궁중 연회에 사용된 보계의 세부자재 (시기별로 분류함)  
 (● : 進爵儀軌, 進饌儀軌, 進宴儀軌, 修理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함)

연회	戊子進爵		己丑進饌		戊申進饌	戊辰進饌	癸酉進爵	丁丑進饌	丁亥進饌	壬辰進饌		申丑進饌	壬寅進宴		
	전각	慈慶殿	環翠亭	明政殿	慈慶殿	通明殿	康寧殿	康寧殿	通明殿	通明殿	勤政殿	康寧殿	慶運堂	中和殿	觀明殿
紅座板		●	●	●	●	●	●	●	●	●	●	●	●	●	●
屯太木		●	●	-	-	-	-	-	-	-	-	-	-	-	-
長屯太木		-	-	●	●	●	●	●	●	●	●	●	●	●	●
短屯太木		-	-	-	-	●	●	●	●	●	●	●	●	●	●
短短屯太木		-	-	-	-	●	●	●	●	-	-	-	-	-	-
散補板		-	-	-	-	●	●	●	●	●	●	●	●	●	●
廉隅板		-	-	-	-	●	●	●	●	●	●	●	●	●	●
桂皮		-	-	●	●	●	●	●	●	●	●	●	●	●	●
吉音木		-	-	-	-	-	-	-	-	●	-	-	●	-	-
足木		●	-	-	-	-	-	-	-	-	-	-	-	-	-
長足木		-	-	-	-	●	●	●	●	●	●	●	●	●	●
中足木		-	-	-	-	●	●	-	●	●	●	-	-	●	-
短足木		-	-	-	-	●	●	●	●	-	●	●	●	●	●
短短足木		-	-	-	-	-	-	-	●	-	-	-	-	-	-
立柱板		-	-	-	-	-	-	-	-	-	-	-	●	-	-
修粧板		-	-	-	-	●	-	●	●	-	-	-	-	-	-
雲橋		●	-	●	●	●	●	-	-	-	-	-	-	-	-
六層雲橋		-	-	-	-	-	●	-	-	-	-	●	-	-	-
四層雲橋		-	-	-	-	-	-	●	-	-	-	-	-	-	-
十四層雲橋		-	-	-	-	-	-	-	-	-	●	-	-	●	-
十三層層橋		-	-	-	-	-	-	-	-	-	●	-	-	●	-
八層層橋		-	-	-	-	-	●	-	-	-	-	-	-	-	-
六層層橋		-	-	-	-	●	-	●	-	-	-	●	-	-	-
五層層橋		-	-	-	-	●	-	●	-	●	-	-	-	-	-
四層層橋		-	-	-	-	●	-	-	●	-	-	-	-	-	●
三層層橋		-	-	-	-	-	-	-	●	-	-	●	-	-	-
二層層橋		-	-	-	-	-	-	-	-	-	●	-	-	●	-
一層層橋		-	●	-	-	-	-	-	-	-	-	-	-	-	-
一層路掌		●	-	●	●	●	●	●	-	●	●	●	●	●	-
二層路掌		-	-	-	-	-	-	●	●	●	●	-	-	●	●
抹木撐支木		●	●	●	●	●	●	●	●	●	●	-	-	●	●
葛芑		●	●	●	●	●	●	●	●	●	-	-	-	-	-
槌皮所		●	●	●	●	●	●	●	●	●	●	-	-	-	-
扭把子		●	●	●	●	●	●	●	●	●	●	-	-	-	-
四寸釘		●	●	●	-	-	-	-	-	-	-	-	-	-	-
加莫金兩排具		●	●	●	●	●	●	●	●	●	-	●	●	●	●
曲連鐵釘		-	-	-	-	●	●	●	●	●	●	-	-	●	●
中甘佐排釘具		-	-	-	-	-	●	-	●	●	●	●	●	●	-
連鐵釘		-	-	-	-	-	-	●	●	●	●	●	●	●	●
大巨勿釘		-	-	-	-	●	-	-	-	-	-	-	●	-	-
大圓環排具		-	-	-	-	●	●	-	●	-	-	-	●	-	-
八寸頭釘		-	-	-	-	-	-	-	-	-	-	-	●	-	●
七寸頭釘		-	-	-	●	●	-	●	●	●	●	●	●	●	-
六寸頭釘		-	-	-	-	-	●	-	-	-	●	-	-	●	-
五寸頭釘		-	-	-	-	-	●	●	●	-	-	●	-	-	●
四寸頭釘		-	-	-	-	●	●	●	●	●	●	●	●	●	●

표 5. 궁중 연희 내연에 사용된 보계의 세부자재 수량  
(수량 : 進爵儀軌, 進饌儀軌, 進宴儀軌, 修理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함)

	연희	戊子進爵	己丑進饌	戊申進饌	戊辰進饌	癸酉進爵	丁丑進饌	丁亥進饌	壬辰進饌	申丑進饌
		慈慶殿	慈慶殿	通明殿	康寧殿	康寧殿	通明殿	通明殿	康寧殿	慶運堂
	紅座板	二百 二十浮	二百 四十七浮	二百 二十浮	一百 九十四浮	一百 五十浮	二百 十六部	一百 五十八部	一百 九十六立	一百 四十八立
	長屯太木	八十箇	二百 四十七浮	九十一箇	三十六箇	五十三箇	九十三箇	七十箇	一百 十六箇	六十八箇
	短屯太木	-	-	六十箇	三十六箇	四十二箇	四十一箇	三十箇	三十九箇	二十五箇
	短短屯太木	-	-	二十七箇	三十五箇	三箇	十四箇	-	-	-
	散補板	-	-	五十七立	二十箇	四十立	一百 四十六立	一百 八十二立	一百 五十九立	一百 二十立
	廉隅板	-	-	六十八立	七十五立	六十一立	五十一立	八十八立	九十七立	七十五立
	桂皮	-	三十五立	-	四十三立	四十五立	四十八立	四十五立	五十四立	十立
	長足木			三百箇	二百 七十八箇	五百 二十四	六箇	七百 二十五箇	一百 七十四箇	七百 二十箇
	中足木	足木 八百 二箇	足木 一千五百 十六箇	二百 二十八箇	一百 三十箇	-	五百 九十八箇	四百 七十五箇	-	-
	短足木			二百 五十二箇	一百 八十箇	三百 十箇	一百 七十七箇	-	六百 七十二箇	四百 五十箇
	短短足木			-	-	-	一百箇	-	-	-
	立柱板	-	-	-	-	-	-	-	-	四十立
	修粧板	-	-	六立	-	二立	四立	-	-	-
	六層雲橋			-	一坐	一坐	-	-	一坐	-
	四層雲橋	雲橋七坐	雲橋 二十八坐	-	-	-	二坐	-	-	-
	十四層雲橋	-	-	-	-	-	-	-	-	-
	十三層層橋	-	-	-	-	-	-	-	-	-
補階	八層層橋	-	-	一坐	-	二坐	-	-	-	-
	六層層橋	-	-	四坐	五坐	一坐	-	-	-	-
	五層層橋	-	-	二坐	五坐	一坐	-	五坐	-	-
	四層層橋	-	-	-	-	-	四坐	-	-	-
	三層層橋	-	-	-	-	-	三坐	-	-	四坐
	一層路掌			七坐	三坐	五坐	八坐	-	四坐	四坐
	二層路掌	路掌四坐	路掌 十三坐	-	-	-	三坐	六坐	三坐	-
	四寸釘	一千五百箇	-	-	-	-	-	-	-	-
	加莫金 兩排具	二十二箇	一百 九十七箇	四十箇	十箇	十四箇	十六箇	十箇	十四箇	十四箇
	曲連鐵釘	-	-	四十八箇	六十一箇	三十三箇	一百 八十四箇	一百 四十六箇	九十八箇	-
中甘佐排 釘具	-	-	-	-	-	一百 三十二箇	一百 三十八箇	一百 二十六箇	-	
連鐵釘	-	七十五箇	一百 四十箇	六箇	三十三箇	一百 九十九箇	八十四箇	一百 五十箇	十四箇	
大巨勿釘	-	-	四十六箇	-	-	-	-	-	四十六箇	
大圓環排具	-	-	四箇	十箇	-	四箇	-	-	四箇	
八寸頭釘	-	-	-	二十箇	-	三十箇	-	-	七十五箇	
七寸頭釘	-	-	四十五箇	-	二十六箇	六十四·箇	六十四箇	三千一百 七十一箇	-	
六寸頭釘	-	-	-	二十六箇	-	-	-	-	-	
五寸頭釘	-	-	-	-	九十箇	三百 二十八箇	-	-	-	
四寸頭釘	-	五千三百箇	一千三百 六十二箇	-	五千五百 七十六箇	二千二百 九十箇	二千二百 九十九箇	三千一百 七十一箇	二千四百 五十箇	

<표 4, 5>를 좀 더 살펴보면, 고종시기 1873년 계유진작의 내연에서 八層層橋가 등장한다. 팔층층교의 등장은 내연에서 이전의 시기보다 층교의 높이가 높아진 사례로 신정왕후 책봉40주년에 맞는 위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팔층층교는 이후 강녕전에서 설행된 임진진찬의 내연에도 등장한다. 하지만, 이후에 열린 신축진찬과 임인진연의 내연에서는 三層, 四層으로 낮게 기록되어 있다. 층교가 외연에서 더욱 높아진 사례는 고종 보위 3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1892년 근정전에서 열린 임진진찬과 고종의 등극 40주년을 위해 1902년 중화전에서 열린 임인진연의 외연에서 十四層雲橋와 十三層層橋가 등장한다.

즉, 궁중에서 거행된 외연에서는 십사층운교와 십삼층층교는 조선후기 고종의 위계를 반영하기 위한 층교로 생각되며, 팔층층교는 막강했던 신정왕후의 위계를 반영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비인 여성보다 왕의 위계가 보계의 단에서도 구분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보계는 선조시기부터 고종시기까지 보계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구조가 변화되며, 발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종시기의 보계는 족목형에 목재를 덧붙여 구조적으로 보강되는 형식으로 발전되어 나타난다. 이는 고종시기부터 내연이 再翌日會酌으로 증가하여 설행되는 것에 따라 보계의 구조도 견실한 구조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4. 보계의 마감과 장식

왕실 행사에서 보계의 하부는 내연의 보계는 외연과 다르게 보계의 외부를 마감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보계 족목이 대부분 노출되는 형식인 외연의 보계와 달리 족목을 가리는 구조로 나타난다. 보계의 족목을 가리기 위한 자재들이 이용되었다. 순조 시기에는 판자를 대어 보계의 하부를 가리는 형식을 갖춘다. 순조 시기에 열린 기축진찬은 명정전의 외연 보계 하부에 판자를 덧대는 형식인 柱板이 나타난다.

<표 6>으로 살펴보면, 정조 시기에는 장막으로 보계의 하부를 가리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봉수당 진찬으로 살펴보면 장막의 형식으로 보계 외부를 가려 내부의 보계 족목과 자재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설하였다. 보계의 하부를 판재로 가리는 것은 순조 시기에 정착되어 나타난다.



그림 3. 기축진찬의 보계 외부 마감 형식(출처: 『純祖己丑進饌圖』, 1827, 호암미술관소장)

판재로 보계의 외부를 마감하면, 족목으로만 지탱하는 무대의 견고성을 보다 지탱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연회에 참가하여 전정에서 절을 올리거나, 여령의 공연이 열리는 무대 응력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기능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진찬, 진연 설행 형식, 사용된 보계 하부 마감 형식 (●進爵, 進饌, 進宴儀軌에 기록된 보계 하부 마감 유·무)

궁중연회	補階		外宴	內宴					
	하부 노출	하부 마감		正宴	夜宴	翌日會酌	翌日夜宴	再翌日會酌	再翌日夜宴
奉壽堂進饌(1795)	-	●	-	●	-	-	-	-	-
己巳進表理進爵儀軌(1809)	●	-	-	●	-	-	-	-	-
進爵整禮儀軌(1827)	●	-	-	●	-	-	-	-	-
戊子進爵儀軌(1828)	●	-	-	●	●	●	-	-	-
己丑進饌儀軌(1829)	-	●	●	●	●	●	-	-	-
戊申進饌儀軌(1848)	-	●	-	●	●	●	●	-	-
戊辰進饌儀軌(1868)	-	●	●	●	●	●	●	-	-
癸酉進爵儀軌(1873)	-	●	-	●	●	●	●	-	-
丁丑進饌儀軌(1877)	-	●	-	●	●	●	●	-	-
丁亥進饌儀軌(1887)	-	●	-	●	●	●	●	●	●
壬辰進饌儀軌(1892)	-	●	●	●	●	●	●	-	-
申丑進饌儀軌(1901)	-	●	-	●	●	●	●	●	●
壬寅進宴儀軌(1902)	-	●	●	●	●	●	●	-	-

보계의 하단부에 판재를 대는 형식은 순조시기 외연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주로 내연이 선행되는 보계에 나타나며, 보계의 하단부를 판재로 마감하며 고급화되는 것은 왕과 대비가 주빈으로 거행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보계의 하단부에 판재를 <표 6>로 분석해보면 進饌, 進宴으로 거행되는 연희무대의 보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계 하단부의 판자는 현종시기에 열린 무신진찬부터 고급 자재인 수장판을 덧대는 구조로 나타난다. 외부 마감 구조가 이전 시기에 비해 고급화되고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장판으로 보계를 하부를 덧대어 마감하는 구조 형식은 고종시기까지 이어져 나타난다. 보계는 의궤의 수리로 구조적인 자재의 기록을 알 수 있고, 마감과 장식은 의궤의 배설부분에서 알 수 있다. 무자진작과 무신진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慈慶殿排設:補階四十五間。【東西九間. 南北五間】:別紋七十五張半張付地衣一浮, 六十四張付地衣一浮, 十五張付地衣一浮, 十三張半付地衣一浮, 十二張半付地衣一浮, 十二張半半張付地衣一浮【並縵青木.前排修補級用】竹欄干十七間。【前面八間.東邊五間半.西邊四間.以上戶曹入排】<sup>15)</sup>

通明殿內外排設-上層補階四十九間半。【東西九間. 南北五間半】:別紋四十二張付地衣一浮, 三十五張付地衣一浮, 二十張付地衣一浮, 【並縵青木.前排級用】, 別紋四十五張付地衣一浮, 三十張二紋付地衣一浮, 二十五張六紋付地衣一浮【並縵青木.戶曹新備】下層補階十四間。【長七間. 廣二間】:別紋二十七張半付地衣三浮, 十六張半付地衣一浮【並縵青木. 前排級用】東退補階九間。【長九間.廣一間】:別紋七張六紋付地衣一浮【並縵青木. 前排級用】, 別紋十三張半付地衣一浮, 十一張付地衣一浮, 三張付地衣二浮【並縵青木.戶曹新備】西退補階十間。【長十間. 廣一間】:別紋十二張半付地衣一浮, 八張七紋付地衣一浮, 【並縵青木. 前排級用】, 別紋七張半付地衣一浮【縵青木. 戶曹新備】<sup>16)</sup>

보계 위에 이어 붙여서 만든 돛자리인 地衣<sup>17)</sup>를 배설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신진찬 지의의 가장자리인 縵은 青木으로 둘러서 배설한 것을 알 수 있다.

왕실 의례에 설치되는 보계는 행사 장소가 협소한 경우 상황에 맞게 배설되었다. 무신진찬의 통명전에 보계를 설치할 때 통명전의 연못을 덮어 공간을 확장하고 지의를 깔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連池蓋覆五間。【長二間半. 廣二間】:別紋十二張付地衣一浮【縵青木.戶曹新備】後面補階十三間。【長六間半. 廣二間】:別紋二十七張付地衣三浮, 十張付地衣張付地衣【並縵青木. 前排級用】上層補階竹欄干二十間。【前面九間. 東西 各五間半】下層補階竹欄干十一間。【前面七間. 東西 各二間】東退補階竹欄干九間. 西退補階竹欄干十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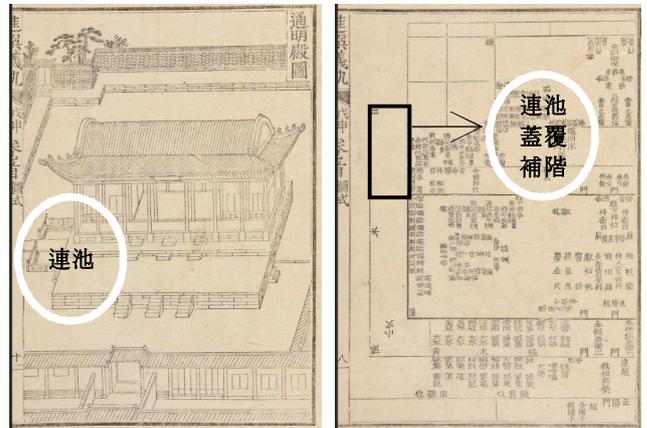


그림 4. 통명전의 연지(출처: 『戊申進饌儀軌』, 1848)

연못을 판자로 막은 사례는 현종 『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1684)에도 나타나는데 연지를 막는데 補階板一百立을 사용한 기록으로 알 수 있다.<sup>18)</sup> 이는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의궤에 기록된 排設을 종합해보면 현종 시기의 보계는 순조시기의 보계에 비해 발전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각에서 전정공간으로 넓혀 배설되는 보계는 전각의 대청을 확장하는 효과와 함께 상층, 하층으로 층에 차이를 두어 왕실과 참여자의 위계를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계에 竹欄干을 보계별로 배설한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보계가 일반적인 마루에서 전각과 같은 위계를 갖는 중요한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또한, 보계는 전각의 대청이 확장되어 설치되어 배설되는 가설대청인 것이다.

보계는 행사에 사용되는 다른 가설시설의 배설에도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으로 배설된다. 궁중 행사에 설치되는 가변시설인 보계는 가설 지붕의 차일, 가설 벽의 주림과 장막과 함께 가변시설의 주요한 기능을 한다. 무신진찬의 보계의 배설은 이후 고종시기의 보계배설에 영향을 주었다.

15) 이의강 역, 『國譯純組戊子進饌儀軌』, 보고사, 2006, 204~212쪽  
 16) 김종수 역, 『國譯憲宗戊申進饌儀軌 卷二』, 민속원, 2005, 223쪽  
 17) 지의는 돛자리 여러 개를 이어 붙인 것으로 행사 거행 등의 장소의 바닥에 깔아 사용하였다.

18) 廁間一間材椽繕工監 草芑二立 分司饗院供上假家三間內二間抹樓板子十八立 朴只三寸丁二十四介材椽繕工監 草芑七立兩倉 正草司僕寺外牆七處軍士入接假家及分兵曹分禁漏圍排材椽及蓋草繕工監正草司僕寺 外大門排日巨乙鎖各一別造朴排 蓮池蓋覆補階板一百立用還平市署假家造時役軍二十名兵曹給價十日付役守直軍士二名限畢役間定送駕木大椽繕工監。(『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1684)

3-5. 보계의 관리와 규모 단위

광해군 시기에 보계에 소용되는 자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선수 도감이 쓰고 남은 목재를 운반하는 일을 아뢰는 사례에서 보계에 들어가는 판자의 수량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sup>19)</sup>

광해군시기 문정전의 보계에 들어간 板子の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으나 九百板의 판재가 소용되었다. 이를 수급하기 위해 운반 등에 따른 많은 공역이 필요했고, 보다 원활한 목재의 수급을 위해 궁궐 근처에 假家를 지어 목재를 관리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궁중에 설치하는 보계는 목재가 많이 필요했다. 즉, 궁중에서는 궁궐 건물을 영조하거나 보계를 배설하는 목재의 수급 조달과 보관, 관리의 고민이 컸다. 정조 시기에는 庫를 保民司에 설치하고, 순조 시기에는 庫를 수어청 守禦廳에 두었다.<sup>20)</sup> 또한 순조 책례 시 사용한 보계는 혜경궁의 회갑연에 사용했던 판자를 사용했다.<sup>21)</sup> 즉, 보계에 필요한 材木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유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왕실에 영조되는 보계는 목재의 수급, 운반, 비용과 장인의 인력수급 등의 부담으로 인한 폐단이 생겨 영조 시기에는 보계의 설치를 자제하여 검약하기도 하였다.<sup>22)</sup> 정조 낙성연에서 열린 행사에는 보계에 설치하는 계단의 판자를 본부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는 기록이 있다.<sup>23)</sup> 순조 시기 보계는 이후에 실행되는 연

희무대의 보계에 영향을 주었다.

보계의 규모를 나타내는 단위는 間이다. 이는 전각의 규모를 나타내는 단위와 같다. 중요한 부재인 홍좌판의 단위는 浮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이는 주렴과 갑장의 단위와 같다. 일정 높이를 띄워서 배설하는 홍좌판이 연희의 무대 보계 위에 배설되고 그 위에 주렴과 차일 배설되는 구조로 단위의 동일성이 나타난다. 즉, 浮는 궁중행사에서 바닥에서 띄워져 배설되는 형식의 가설시설인 朱簾, 遮日, 紅座板, 地衣의 공통된 단위인 것을 알 수 있다. 紅座板은 단위는 <표 5>로 살펴보면 浮의 단위가 정축진찬에는 部, 이후 에는 立으로 변화되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보계의 屯太木, 足木의 단위는 箇이며, 산보판, 염우판의 단위는 立, 층교와 답장은 坐의 단위로 나타난다. 수리의 홍좌판, 장둔테목, 단둔테목, 단단둔테목, 산보판, 염우판, 장죽목, 중죽목, 단죽목, 수장판, 층교, 답장과 배설에 사용되는 지의는 호조에서 담당하였다.

판재의 보관은 명종 시기에는 해사, 자문감에서 하였으며, 광해군 시기에는 인왕산 아래에 쌓아두고 사용하였다. 정조 시기에는 慶熙宮 · 暎翠亭의 담장가에 보관하거나, 목물고인 창고에 판재를 보관하였다. 순조 시기에는 涵仁亭 慶熙宮 · 暎翠亭의 후내에 보관하기 시작 하였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궁중에서 거행되는 의례행사의 상례, 제례, 가례, 과거시험, 존호, 책례 등은 예제의 격에 맞는 다양한 가변시설들이 설치되었는데 중요한 행사에는 마루판 구조물인 補階가 주로 배설되었다.

보계는 왕실의 주빈을 위한 진찬이나 사신접대 연회에서 배례와 여령의 궁중무용인 정재를 공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배설되었다. 특히 왕과 대비를 주빈으로 설해지는 進爵, 進饌, 進宴의 연희무대에 배설되는 보계는 자재와 형식에서 다른 연희무대와 달리 최상위 등급으로 제작되었다. 왕실의 의례에 사용된 보계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계의 구성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間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상부는 마루인 紅座板과 마루모서리를 장식하는 廉隅板, 중죽을 이용하여 세우는 竹欄間으로

19) -선수 도감이 아뢰기를, "문정전의 補階를 만들 板子는 工匠을 불러 계산해 보았더니 9백여 板은 있어야 배설을 할 수가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볼 때에 남은 것은 7백여 조이고, 椽은 1천 5, 6백 조입니다. 大木은 두 대의 수레에 하나를 싣고 그 다음 크기의 것은 한 대의 수레에 하나씩 싣고 小材는 한 대의 수레에 두 개씩을 싣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목재와 연목을 운반할 수레가 몇 백 대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그렇게 하여 잘 쌓아두고 大椽으로 假家를 짓고 쓰고 남은 眞長木으로 두루 덮어 두면 비나 이슬을 맞아 썩게 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인왕산 아래로 운반해다가 쌓아두고 守直內官과 禁軍軍士들로 하여금 착실하게 지키게 하여 허술하게 될 염려가 없도록 하라."하였다. 文政殿補階板子, 召匠計之, 須有九百餘板, 然後可以排鋪云. (『광해군일기』 [중초본] 106권, 광해 8년(1616) 8월 21일 기미)

20) 木物庫 2庫 : 정종 임인(1782, 정조 6)에 一庫를 설치하고 古舊 保民司에 있음. 當宇 景杓(1807, 순조 7)에 一庫를 설치하였으니, 古舊 守禦廳에 있음. 補階 · 橋樑 등의 材木을 積置하는 곳이다. (『만기요람(萬機要覽)』, 財用編六, 諸倉, 戶曹各倉庫)

21) 1월 24일 내일은 관례 습의만 集福外軒에서 하고 책례 절차는 寢殿에서 전하는 것이니 습의는 하지 말라고 전교함. 행례에 쓸 補階는 乙卯年(1795) 慈宮의 周甲 進饌에 쓴 補簷 補板을 보관해 둔 것을 사용하겠다고 전교함. 교명 책인의 內入 內出은 하지 않고, 내일 陪進하면 取覽하겠다고 전교함. (『純祖冠禮冊儲都監儀軌』, 1800)

22) 하교하기를, "世孫嬪 初揀擇을 마땅히 光明殿에서 행하려 하나 단지 翼帳을 설치하고 큰 遮日과 補階 등의 일은 그만두도록 하라."하였다. (『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 10월 21일 병술)

23) 병진년(1796) 10월 초7일 : 낙성잔치를 장소는 낙남헌으로 정하고 보충할 계단을 설치하는 따위의 일은 미리 거행하되, 보충 계단의 판자 및 차일, 둘러칠 병풍, 장막, 유기, 목기 등은 아울러 본부에 있는 것을 쓰고... (『國譯 華城城役儀軌』, 附編二 甘結, 788쪽)

구성되었으며, 하부는 지지목인 足木과 보계의 높이에 따라 설치되는 層橋로 구성된다.

둘째, 보계의 足木 유형은 短足木形, 中足木形, 長足木形, 平足木形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보계의 높이 변화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보계의 세부구조를 살펴보면 순조시기까지 등장한 족목과 둔테목이 현종 시기에 설행된 무신진찬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 된다. 屯太木은 長屯太木, 短屯太木, 短短屯太木으로, 족목은 長足木, 中足木, 短足木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보계의 구조는 더욱 견고해지며 발전하였다.

넷째, 보계는 연회의 위계에 따라 높이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단 차이가 높은 보계의 경우에는 雲橋와 層橋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그 높이에 따라 三層, 四層, 五層, 六層 등으로 차등을 두며 설치되었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이전시기와 달리 고종시기 외연에서 등장한 十四層雲橋와 十三層層橋인데 이는 외연에서 왕인 고종의 위계를 반영하고 있다. 내연에서 나타난 八層層橋는 막강했던 신정왕후인 대비의 위계를 반영하여 나타난다. 또한, 이 두 사례는 대비를 상징하는 八層層橋보다 왕을 상징하는 十四層雲橋와 十三層層橋가 등급이 높았던 것을 확인시켜준다.

다섯째, 보계의 마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일반적으로는 보계 하부의 족목이 노출되었으나 정조 시기에는 보계 하부를 장막으로 덧대어 나타나며, 순조시기에는 보계 하부를 주판의 판재로 마감했다. 보계 하부 마감이 고급화되는 것은 현종무신진찬으로 하부 마감이 修粧板으로 변화되며, 보계의 가장자리를 장식하기 위한 廉隅板까지 설치되었다. 즉, 무신진찬은 이전 시기의 연회 보계에 비해 자재가 다양하고 고급화 되어 발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계 하부를 판재로 마감하는 형식은 궁중의 進饌, 進宴 형식에서 주로 나타난다.

여섯째, 보계의 자재 보관은 광해군 시기에 假家の 보관법에서 정조, 순조시기에는 庫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정조 시기부터 발전된 진찬의 연회가 순조, 고종시기를 거치면서 연회 빈도가 많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으며, 재사용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보계는 궁중 의례의 목적에 따라 왕실의 외부 무대를 조성한다. 순조시기에 정착된 보계는 현종시기에 세분화, 고급화되어지며 고종시기에 이르러 왕과 대비의 위계를 반영하며 높이의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조선시대 건축의 또 다른 특징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
- 『戊子進爵儀軌』, 1828
- 『己丑進饌儀軌』, 1829
- 『戊申進饌儀軌』, 1848
- 『戊辰進饌儀軌』, 1868
- 『溪由進饌儀軌』, 1873
- 『壬辰進饌儀軌』, 1892
- 『申丑進饌儀軌』, 1901
- 『壬寅進宴儀軌』, 1902
- 『純祖冠禮冊儲都監儀軌』, 1800
- 『萬機要覽』, 1808
- 『변례집요』, 1598-1841
- 이의강 역, 『국역 순조무자진작의궤』, 보고사, 2006
- 송방송 외 역, 『國譯 純祖己丑進饌儀軌 卷一·卷二·卷三』, 민속원, 2007
- 전통예술원, 『국역 현종무신진찬의궤 卷一·卷二·卷三』, 민속원, 2007
- 『원행음묘정리의궤: 역주』, 수원화성박물관, 2015
- 『國譯 華城城役儀軌』, 수원시, 2006
-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최지영, 「조선시대 궁중의례에서 사용된 차일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세기 이후 궁중연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경세진, 조재모, 「조선후기 궁중연향의 실행과 공간운용에 관한 연구 -순조조 궁중연향의궤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8권, 1호, 2012, 157~158쪽
- 정현정, 「조선시대의 상층향유 연회무대와 현대화 방안」,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석진영, 「순조 궁중연회 내연 무대의 朱簾, 甲帳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6권, 6호, 2017, 7~16쪽

접수(2018. 2. 15)

수정(1차: 2018. 3. 27)

게재확정(2018. 4. 4)